

10월 도내 중기 경기전망지수 ↑

86.6으로 전월비 8.3p 상승... 연휴 이후 심리 개선·서비스업 상승 전망 경기상승 기대감 확대

경기개선에 대한 기대감과 서비스업 상승 기대 전망 등으로 제조업, 서비스업의 경기전망지수가 전월보다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전북 중소기업회장 두완정)가 지난 16일부터 23일까지 전북지역 소재 127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19년 10월 전북지역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를 실시

한 결과에 따르면, 10월 업황전망 경기전망지수(SBI)는 86.6으로 전월보다 8.3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추석연휴 이후 경기개선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서비스업 상승 기대 전망 등으로 제조업, 서비스업이 전월대비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제조업의 2019년 10월 경기전망은 전월보다 7.0p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

었다. 비제조업은 전월보다 9.9p 상승하였으며, 이중 건설업은 전월과 동일하였고, 서비스업은 전월대비 11.0p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내수판매(79.9→87.0), 수출(92.3→96.9), 영업이익(77.6→84.3), 자금사정(80.3→82.3) 전망이 전월대비 상승하여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다만, 역계열인 고용수준(95.3→95.7) 전망

은 다소 증가하였으나 고용수준은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9월의 중소기업의 경영애로(복수응답) 응답을 살펴보면 '내수부진'(77.2%), '인건비 상승'(32.3%), '계절적 비수기'(19.7%), '업체간 과당경쟁'(18.9%), '자금조달 곤란'(18.1%), '원자재 가격상승'(15.7%) 순으로 나타났다. /김윤상 기자

농식품부, GAP 실천 강화 주간 운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10월 1일부터 14일까지 전국GAP생산자협의회를 중심으로 'GAP 실천 강화 주간(이하 캠페인)'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GAP이란 우수농산물관리제도로, GAP생산자협의회는 107개 회원농협, 26만 농업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간 GAP 제도 도입(2006년) 이후 지속적인 정책추진으로 GAP인증은 꾸준히 증가했으나, 농업인의 생산단계 위생환경 조성의 주도적 참여는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농축산부는 이번 캠페인을 평소 세심하게 관리하지 못했던 농장의 위해요소에 대해 농업인 스스로 점검하여 농산물의 위생수준을 높이고 인증의 내실화를 기하자는 취지로 추진한다.

주요내용은 ▲생산농가의 GAP 기준 실천 강화와, ▲농식품부, 농진청, 농관원 등 관계기관의 교육·홍보 지원이다. /김윤상 기자

하림, 기술혁신 컨설팅 진행

닭고기 전문기업 ㈜하림(대표이사 박길연)은 협력업체와 동반성장 도모를 위한 기술혁신 컨설팅을 진행했다.

지난 30일 본사 회의실에서 하림 박길연 대표이사를 비롯해 임직원들과 협력사 (주)석성 김중성 대표이사, (주)신성에프엔비 최영환 대표이사, 현대종합기계 변금용 대표이사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반성장 기술혁신 컨설팅 및 2019년 우수협력업체 시상식을 가졌다.

(주)하림과 협력사가 공동으로 품질 향상 및 설비 혁신을 이뤄 생산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다짐했다.

이와 함께 도계생산 설비 및 닭고기 제품 품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준 협력업체 3곳에 대해서도 감사패를 전달했다. /익산=장영원 기자

신협이 현재·미래 조명

아시아신협연합회 포럼 개최 김윤식 회장, 국제적 연대 강조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소재 버자아 타임스퀘어호텔에서 아시아신협연합회(ACCU : Association of Asian Confederation of Credit Unions: 이하 ACCU)의 주최로 '2019 아시아신협연합회 포럼 및 총회'가 개최되었다.



2019 아시아신협연합회 포럼에서 김윤식 아시아신협연합회장이 개막식 환영 인사를 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거버넌스 및 아시아 신협네트워크와 재무안정성을 통한 조합원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주제로 총 23개국 551명이 참가했다. 주요 세션으로는 ▲지속 가능한 협동조합 모델 유지 ▲신협의 건전경영, 포용금융 ▲디지털시대 신협의 미래 ▲조합원 관계강화 및 소상공인 지원정책 등 18개의 주제별 포럼이 열렸다.

한국에서는 아시아신협연합회 김윤식 회장(신협중앙회장)을 비롯하여 한국 신협 대표단 55명이 참가해 최근 전략적으로 추진 중인 '포용금융 7대 프로젝트'의 우수 사례를 전파하고 아시아신협의 비전 및 선진 신협 발전 전략을 공유했다.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은 23개국, 3500만명의 아시아지역 신협 조합원을 대표하는 아시아신협연합회 장으로서 개막 인사를 통해 "전 세계에 경기불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타 금융기관과 차별화된 협동조합 정신을 기반으로 한 신협 본연의 사회적 가치는 더욱 중요해 지고 있다."며 "금융협동조합을 대표하는 신협이 저개발국의 빈곤 해결과 경제적 자립을 위한 국제적 연대와 협력을 주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한국 신협은 아시아신협의 협력과 공동발전을 위하여 아시아신협지도자 양성을 위한 초청연수를 33년째 실시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는 중견리더 양성을 위한 금융프로그림(Asian Credit Union Leader's program:ACL)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미국·캐나다 등 117개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신협은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비영리 금융협동조합으로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상업은행과 달리 조합 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조합원들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신협은 2018년 말 기준 전 세계에 8만9026개, 2억6000만명의 조합원이 2400조원의 자산을 조성해 명실상부 세계 최대 민간금융협동조합으로 우뚝 섰다.

그 중에서도 한국 신협은 자산 100조 원, 조합원 및 이용자 1300만 명으로 세계 4위, 아시아 1위 규모이며, 신협중앙회 김윤식 회장은 아시아신협연합회(ACCU) 회장과 세계신협협회(WOCCU) 이사로서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신협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내년, 창립 60주년 기념식을 앞둔 한국 신협은 세계신협협회(WOCCU)와 신협연합회(ACCU)의 이사회를 한국에서 동시에 열어 글로벌 신협의 리더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김윤상 기자

농촌진흥청, 중만생 최고 품질 벼 '예찬' 개발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소비자 및 생산자가 원하는 밥맛 좋은 최고 품질 벼 '예찬' 품종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예찬' 품종은 '현품(12년 육성)' 이후 처음 육성한 중만생종이며, 충남 이남 평야지와 남서 해안 지역에 재배하기에 알맞다. 백미의 단백질

함량은 5.6%로 낮으며, 식미검정에서 밥맛이 매우 좋다는 평가다.

벼 '예찬'은 신품종 이용 촉진 사업 시행 중으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종자생산 단계를 거쳐 2020년 농가에 보급할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

노령연금 수급자 매년 큰 폭 증가

국민연금, 올 상반기 389만8천여명에 9조2400억원 지급 지난해 상반기보다 수급자 4.5%·지급액 7.3% ↑

노령연금 수급자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은 2019년 상반기(6월말) 389만8000명의 국민에게 9조2400억원(매월 1조5400억원)의 노령연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동기대비(2018년 6월말) 수급자는 4.5%, 지급액은 7.3% 증가한 것이다.

가입기간별 노령연금 수급자를 보면, 20년 이상 가입자는 59만7000명(15.3%)이고, 10~20년 미만 가입자는 209만7000명(53.8%), 10년 미만 가입자는 120만4000명(30.9%)이다.

5년전(2014년 12월) 대비, 10년 미만 수급자는 10.5% 감소한 반면, 10년~20년미만 수급자는 56.5%, 20년 이상 수급자는 127.8%가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도별 노령연금 수급자 대비 20년 이상 수급자 비율은 2014년도에는 8.9%이었으나, 2019년 6월 현재 15.3%로 6.4%p가 증가하였으며, 매년 그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노령연금 수급자 평균연금액(특례·분할 제외)은 52만3000원이며, 20년 이상 가입 수급자의 평균 연금액은 92만6000원, 최고 수급자의 수급액은 월 210만8000원이다.

남성 B세(62)는 1990년부터 316개월간 연금보험료 4400만원을 납부하고, 2017년 10월(61)부터 매월 89

만5000원, 물가변동에 따라 2019년 6월 매월 92만6000원의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

2021년 11월(50개월 연금수급)이 되면 그간 받은 연금액이 보험료보다 더 많게 되며, 향후 83.09세(2018년 통계청 발표 남성 기대여명)까지 21년간 연금을 계속 받는다고 가정하면, 총 수급액은 2억4500만원으로 납부 보험료 총액 보다 2억 100만원(4.6배)을 더 받게 된다.

노령연금 수급자 중 여성 수급자는 132만명으로 33.8%를 차지하며, 전년 동기대비(2018년 6월) 6.7%(8만명) 늘어났다. 2014년과 비교하면 5년 동안 남성 수급자가 27.0% 증가한 반면, 여성 수급자는 43.8%(40만명)가 증가하였다. 이는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와 노후준비 인식확산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부부 모두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32만4597쌍(64만9194명)으로 2018년 12월보다 2만6000쌍(8.7%)이 증가하였고, 부부 합산 기준으로 가장 높은 연금액은 353만5000원에 달한다.

공단 관계자는 "연금제도가 성숙해짐에 따라 가입기간이 늘어나고, 여성 수급자 및 부부수급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연금액은 실질가치가 유지되기 때문에 앞으로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NH농협, 농촌체험여행 이벤트

부안 유유동 누에타운 탐방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김장근)는 최근 SNS를 통해 GO FARM 이벤트에 당첨된 수도권지역 고객과 영업점 우수고객 70명을 대상으로 국가중요농업유산인 부안 유유동 누에타운 탐방여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국가중요농업유산이란 정부가 국내 각지의 전통적 농업활동과 경관, 농업 기술 및 문화 등을 선정해 보존하고 계승하고자 하는 취지로 실시하는 지정제도다. 이번에 방문한 유유마을은 친환경적인 뽕나무 재배와 누에를 사육하는 농업시스템이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는 지역으로 농업유산적 가치를 인정받아 도내에서 유일하게 국가중요 농업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이번 탐방여행에 가족과 함께 참여한 유수경 고객은 "아이들과 함께 우리가 몰랐던 우리 농업자원의 가치를 배우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NH농협은행 김장근 본부장은 "이번 탐방은 우리의 소중한 농업자원을 보존하고 알리는 계기가 되어 더 의미가 있다."며 "오늘 방문해 주신 고객분들이 정겨운 농촌의 향기를 느끼며 즐겁고 행복한 추억을 만드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GO FARM 농촌체험여행 이벤트는 농가소득 증대 및 도농교류 가치확산을 위한 '도농공감 농촌체험·관광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기획되어, 전북지역의 관광지를 중심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지역의 팍스테이마일과 국가중요농업유산 홍보에 힘쓰고 있다. /김윤상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전주지역범죄피해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